탁월한 밸런스, 진정한 음악이 자연스레 펼쳐지다

Dynaudio DM3/7 Audio Analogue Crescendo Inte Amp · CDP

_글 나병욱

어렸을 때부터 필자를 잘 따르던 조카 녀석이 어느덧 성장하여 대학을 졸업하고, 군에서도 군의관으로 제대한 다음 취업하고 나더니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한다. 상대는 대학 다닐 때 사귀었던 후배라고 하는데, 자기 의견을 잘 드러내지 않고, 남자의 말에 토를 달지도 않으며, 모든 면에서 욕심도 별로 없는 편이어서 남편의 입장에서 볼 때 결혼 후에도 자유스러울 것 같아 결혼하고 싶다는 것이 조카의 의견이다. 반면 조카의 부모 입장에서는 평소 약간의 게으름과 경제에 관한 소비성, 그리고 자기주장이 강한 편인 성격을 며느리가 잘 관리하고 감독을 해주어야 될 텐데 그냥 방치하고만 있을 것 같은 성격으로는 앞으로 가정을 꾸려나가기에 경제나 자녀 교육 등에서 문제가 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선뜻 결혼을 승낙하지 못하고 있다 한다. 필자가 조카 녀석을 만나게 되면 인생의 선배로서 오디오의 매칭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어 다시 한 번 결혼의 중차대함을 일깨워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지금까지 오디오 취미란 바꿈질의 재미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수많은 오디오 기기들이 선택되었다가는 쫓겨나가고 더 젊은 앰프가 들어왔다가는 나이 많은 스피커의 눈에 들지 않아 버려지는 것이 오디오의 숙명이기도 하지만 어디 인생에서야 오디오와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비교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평소 생각이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오디오 기기들의 만남에서도 서로의 장단점을 잘 보완해 줄 수 있는 만남이(매칭) 최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그래서 어느 한쪽의 성격만이 두드러지게 돌출되지 않으며, 단점은 가능한 한 드러내지 않고, 장점은 힘을 합쳐 지성적으로 표출해 낼 수 있는 만남을 말한다.

이번의 매칭은 사실 첫 번째가 아닌 두 번째의 만남이라고 보아도 될 것 같다. 엇비슷한 기기들의 만남이 작년에 한 번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만남에서 궁합(?)이 좋아 가격 대비 성능면에서나 가구적인 외향에서 모두 합격점을 받아 좋은 매칭으로 평가되었기에 좋은 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리라. 오디오 아날로그 인티앰프를 시청한 박성수 선생의 평을 보면 스케일이 그리 크지는 않지만 삼삼하면서도 소담스러운 이미지로 연출하는 모습에 자연스러운 음향 무대를 섬세하게 다듬어진 아름다운 음색으로 채워가는 것! 이것이 크리센도 인티앰프의 실체라고 적고 있다. 외향에서도 이탈리아 오디오답게 세련된 디자인에, 감각적인 구성과 충분한 입출력, 거기에 다양성 있는 용도로 설계되어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지만, 함께 사용할 것을 전재로 설계된 CD 플레이어와의 만

수입원 : 태인기기 (02)971-8241

Dynaudio DM3/7

· **가격** : 250만원 · **구성** : 2웨이 3스피커 · **인클로저** : 베이스 리플렉스형 · **사용유닛** : 우퍼(2) 17cm, 트위터 2.8cm · **재생주파수대역** : 40Hz-20kHz(±3dB) · **크로스오버 주파수** : 1800Hz · **임피던스** : 4Ω · **출력음압레벨** : 86dB/2.83V/m · **IEC 파워 핸들링** : 200W 이상 · **크기(WHD)** : 20.4×96×27.5cm · **무게** : 18kg

Audio Analogue Crescendo Inte Amp

· **가격** : 150만원 · **실효 출력** : 50W(8Ω), 80W(4Ω) · **노이즈 레벨** : -100dB 이하 · **라인 게인** : 6dB · **파워 앰프 게인** : 27dB · **입력 임피던스** : 40kΩ · **크기(WHD)** : 44.4×8.1×38.1cm · **무게** : 10.4kg

Audio Analogue Crescendo CDP

· **가격** : 150만원 · **CD 메커니즘** : 티악 CD-5010A · **주파수 응답** : 20Hz-20kHz(+0, -3dB) · **THD** : 0.003% 이하 · **다이내믹 레인지** : 97dB · **노이즈 레벨** : -120dB · **S/N비** : 97dB · **출력 레벨** : 2V · **크기(WHD)** : 44.4×8.1×34.7cm · **무게** : 6.8kg

남은 태어나기 오래전부터 예고된 만남으로 스피커와의 조우에서 우리나라의 국회처럼 통일감 없이 좌충우돌하여 소란한 일은 결코 없을 것 같다. 크레센도 CD 플레이어는 지명도가 높은 티악의 메커니즘을 채용하고 있지만 티악의 기술팀과 함께 오랫동안 연구에 연구를 거듭, 로테이션 스피드는 줄이면서 리딩 과정은 더 늘리는 방식으로 지터를 효율적으로 줄이는 한편 메커니즘 연구와 진동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도 함께 이루어졌다. D/A 컨버터에도 버 브라운의 리시버 칩을 사용, 192kHz/24비트로 설계되었으며, 출력 필터에도 5차 오더라는 방식을 최초로 도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복잡해진 설계에서 디스토션과 노이즈에 대응하기 위해 섬세하게 선별되고 거듭 개량한 부품들이 사용되었다.

함께 매칭될 스피커는 너무도 잘 알려져 있는 다인오디오의 DM3/7을 선택했는데 2웨이 3유닛의 베이스 리플렉스 톨보이형의 스피커 시스템이다. 17cm 구경의 우퍼가 2개 채용되었는데, 콘은 MSP라는 신소재이고, 경량 알루미늄 보이스 코일을 채용, 저역의 탄력과 응답성을 높여주는 설계이다. 맨 위쪽에 위치한 2.8cm 구경의 돔 트위터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다인오디오 제작의 지명도 높은 트위터가 우퍼와 함께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프레임과 함께 장착되어 진동에 대응하고 있다.

스피커의 음압 레벨이 86dB이고, 앰프의 출력이 8Ω에 50W로 조금은 염려스러운 점도 있었지만 웬만한 앰프에도 너그러운 듯한 성격의 스피커 덕분에 별탈은 없었다.

음악이 흐르면서 첫 느낌은 가격과는 달리 정장 차림의 공무원을 마주하고 있는 듯 흐트러짐이 없는 반듯한 자세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음이라고 생각되었다. 고역과 저역의 밸런스도 나무랄 데가 없었고, 특별히 화사하지는 않았지만 중역과 고역에서 섬세하면서 막힘없이 시원하게 잘 빠져 나왔다. 비트 있는 팝 음악에서는 목소리가 가감 없이 비교적 자연스럽고, 허스키한 목소리도 탁하다는 느낌 없이 잘 다가왔는데, 킥 드럼과 일렉트릭 베이스의 합성에서는 조금 무르다는 느낌도 받았다. 재즈 음악에서 악기들의 표정이 리얼하게 표현되며 특히 스네어의 스킨을 스치는 브러시 워크는 기분 좋게 들린다. 다만 콘트라베이스의 임프로 바이제이션에서 E현의 저음은 아무래도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 앰프의 출력과 스피커의 능률 때문인 듯하다. 하지만 첼버 오케스트라에서 본 매칭은 잘 만난 시스템이 되었는데, 정겹게 느껴지는 목관들의 관 울림에 코막힘 없이 들어마시는 호흡처럼 현의 울림이 시원하고 첼로와 콘트라베이스의 저역은 고음 악기들의 자리를 편안하게 해주어 자연스런 앙상블을 들려준다. 가격과 외모 등을 고려할 때 아주 잘된 매칭의 하나가 아닐까하는 느낌을 받았다. A